

2027년 국·도비 확보 총력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장수군, 대응보고회 갖고 핵심사업 중심 확보 전략 마련·추진방향 논의

장수군은 24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2027년 국·도비 예산 확보 및 주요 현안 대응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7년 국·도비 확보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주요 지역 현안 사업 추진 현황과 실적을 점검해 지역 발전과 미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는 이정우 장수부군수 주재로 실·국장, 부시장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2027년 국·도비 17개 사업 1,064억 원 확보를 목표로 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사업은 △장수군 역사문화권 조성사업(130억 원) △비룡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170억 원) △원대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62억 원) △산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23억 원) △계남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18억 원) 등이다.

이어 소방심신수련원과 국립 트레일 센터, 국립 자연휴양림 등 국립시설 유치를 비롯해 국·도 개량·신설과 고



장수군은 24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2027년 국·도비 예산 확보 및 주요 현안 대응보고회'를 개최했다.

속도로·철도망 구축 등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아울러 이번 보고회에서는 국·도비 예산 확보 대응에만 그치지 않고 금강 국가하천 승격과 동화댐 관련 현안 등 지역의 주요 현안도 함께 점검하며 중

합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장수군은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중앙부처 및 전북특별자치도, 국·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각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등 국·도비 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도입... 4월 시범운영

무주군이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통합 인허가 시스템을 도입한다.

군은 '개발행위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을 구축해 인허가 관련 민원 업무를 전자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도·지·읍·면·동'이 접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행위 인허가를 통합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IPSS 도입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서류 제출, 진행 상황 조회, 허가증 발

급, 준공검사 신청까지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또 '정부24'를 통해서도 인허가 신청이 가능해져 군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오는 4월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스템이 정착되면 인허가 자료의 전자화로 종이 사용이 줄어들고, 온라인 상담을 통한 민원 대응으로 처리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역사박물관, 유물 구입 추진

진안역사박물관은 진안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자료 및 옛 사진 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한 유물 구입을 추진한다.

이번 구입 대상 유물은 진안지역과 관련된 고지도나 고분헌, 고문서를 비롯해 마이산, 인삼·홍삼과 관련된 유물, 민속품 등으로 진안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유물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진안의 문화유산이나 경관·풍속 등을 1980년 이전에 촬영한 사진

자료도 구입 대상 유물에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0일까지로, 진안군과 진안역사박물관 누리집에서 자세한 공고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입대상 유물과 가격은 전문가 감정평가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기타 관련 문의는 진안역사박물관 유물구입 담당자(063-430-8085)를 통해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생활밀착형 달리기 '런 위드 무주'

군, 주민 건강 증진 위해 남대천 일원서 진행

무주군이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달리기 프로그램 '런 위드 무주'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무주를 남대천 일원에서 진행되며, 올바른 운동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기간은 지난 9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약 6주간이다.

월요일과 수요일 두 개 반으로 나눠 각각 20명씩,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올바른 달리기 자세와 속도 조절, 부상 예방법 등을 배우게

된다.

또 개인 체력 수준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통해 걷기와 달리기 전환 훈련, 심박 기반 달리기, 시간주와 거리주 등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다.

무주군은 프로그램 종료 이후 참여자 중심의 달리기 동아리 구성을 지원해 지속적인 운동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보건의료원이 운영 지침을 제공하고 이후 주민 주도의 자율적 활동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군, 농기계 안전교육·순회수리 추진

진안군은 24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안전교육 및 순회수리' 추진에 나섰다

'농기계 안전교육 및 순회수리'는 농기계 사고 예방의 핵심인 '사전 교육'에 있다는 점에 착안해, 단순 수리를 넘어 안전의식 제고와 실전 중심의 현장 지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운영된다.

특히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고장 원인 분석, 정

비기술, 보관관리 요령, 안전운행 방법 등 실질적인 교육을 강화해 농업인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교육은 농기계 교관 1명을 포함한 총 5명이 참여해 진행되며, 상·하반기로 나눠 관내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각 2회씩 총 22회에 걸쳐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반기 교육은 3월 10일부터 26일까지 진행 중이며, 하반기 교육은 8월 4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및 점검 대상은 관리자, 방제기



등 소형 농기계로, 농업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종 위주로 운영된다. 단순 고장 수리에 그치지 않고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수리 실습을 병행해 자가 정비 능력 향상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24일 장수향교 주관으로 향교 대성전에서 유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

장수향교 춘기 석전대제 봉행

장수군은 24일 장수향교(전교 이경술) 주관으로 향교 대성전에서 유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석전대제는 석전제·상정·정제라고도 하며, 매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上丁日)에 성균관과 전국 향교 대성전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성과 성현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전통 의식으로, 유교문화의 정수를 계승하는 대표적인 국가무형유산이다.

이날 제례에서는 초헌관에 박팔봉, 아헌관에 이종관, 종헌관에 박명규 유림이 참여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의

식을 진행했다.

행사는 전통 제례 절차에 따라 초헌관이 분향과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를 시작으로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분헌례 △음복례 △망묘례 순으로 진행되며 유교 전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이번 석전대제는 지역 유림과 주민이 참여해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선현들의 학덕과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예절과 충효 사상을 확산하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 3년 연속 우수

진안군이 전북도의 '2025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선정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매년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것으로,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번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평가로, 지자체의 기업 환경 조성 전반을 4개 분야 16개 항목의 지표로 종합 평가한다.

군은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인구 7만 미만 그룹 도시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특히 2025년에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비 확보(258억 원) △노후 농공단지 환경개선 공모사업 2건 추진(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연장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공장설립 제한 지역 내 농공단지 수도법 개정 건의 등 기업 근무 환경 개선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이 평가에서 긍정적인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소방서, 봄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비치 당부

무주소방서는 기온이 상승하고 대기가 건조해지는 봄철을 맞아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화산소화기 등 각종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당부한다고 전했다.

무주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소화재를 자동으로 방출하는 자동화산소화기와 배전반 등 좁은 공간에 설치하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비치를 강조했다. 전기 화재의 주요 원인인 아크(불꽃)를 감지해 전원을 차단하는 아크차단기 설치를 권장하며 초기 진화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차량 화재와 주방 화재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안내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의무화된 점을 홍보하고, 더불어 집단급식소나 대규모 점포의 주방에는 상업용 주방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해 대형 화재로의 확산을 방지해달라고 전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